

# K리그 유턴... '이청용 vs 기성용' 첫 대결 성사될까

울산-서울, 30일 울산문수축구경기장서 18라운드

06~09년, '쌍용'으로 불리며 서울 중심에서 뛰어

올해 국내로 복귀한 이청용(울산)과 기성용(서울)이 K리그 무대에서 역사적인 첫 대결을 펼칠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울산 현대와 FC서울이 오는 30일 오후 5시30분 울산문수축구경기장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0 18라운드를 갖는다.

관련 포인트는 이청용과 기성용의 대결 여부다.

국가대표 핵심 지원으로 활약했던 둘은 지난해까지 유럽 무대에서 뛰다가 올해 나란히 K리그에 돌아왔다.

이청용과 기성용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서울 유니폼을 입고 '쌍용'으로 불리며 서울의 중심에서 뛰었다.

2009년에 이청용은 잉글랜드의 볼턴 원

더러스 기성용은 스코틀랜드의 셀틱FC로 이적했다. 약속이나 한 듯 11년 만에 복귀한 것이다.

2015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각각 크리스털 팰리스(이청용)와 스완지 시티(기성용) 소속으로 대결을 펼친 적은 있지만 K리그에서는 없다.

올해 3월 울산에 입단한 이청용은 6월20일 서울과의 경기에서 부상으로 결장했다. 14경기에서 3골 1도움을 기록했다.

7월 여름 이적시장에서 돌아온 기성용은 아직 복귀전을 치르지 않았다.

부상에서 회복해 꾸준히 몸을 만들고 있다.

김호영 서울 감독대행은 이달 초 기성용

의 복귀 시점에 대해 "확답하기 어렵지만 훈련을 같이 하고 있다. 기성용에게 '도움이 되고 팬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때 나오라'고 했다"며 "100% 헌신할 수 있을 때 와야 한다. 선불리 나와서 부상이 재발하면 올 시즌에 나오지 못할 수 있다"고 했다.

서울(승점 20)은 최근 4경기에서 3승1무의 상승세를 그리며 6위로 올라섰다.

기성용 복귀로 탄력을 기대할 수 있고, 기성용 입장에서 복귀 부담을 덜고 나설 수 있는 시점으로 보인다.

선두 울산(승점 42)은 최근 공식 10경기(K리그8경기·FA컵 2경기)에서 9승1무로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다.

지난 8일 수원 삼성과 비기면서 2위 전북 현대(승점 41)에 추격의 발미를 찾지만 이후 2연승을 기록했다.

최근 상대전적에서는 울산이 압도적 우위다. 세 시즌 동안 패하지 않았다.

2018년 4월14일 1-0 승리를 시작으로 8



경기에서 6승2무를 거두고 있다. 김도훈 울산 감독은 "더운 날씨에 매 경기 쉽지 않지만 선수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다. 다음 경기에서도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 류현진·김광현, 내일 MLB 동반 선발승 정조준

올해 세 번째 같은 날 등판할 수 있는 기회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과 김광현(32·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또 다시 같은 날 선발투수로 출격한다.

류현진은 28일(한국시간) 미국 뉴욕주 버펄로의 살렘필드에서 열리는 보스턴 레드삭스와의 홈경기에서 선발 등판한다.

김광현 역시 세인트루이스의 부시스타디움에서 열리는 피츠버그 파이리츠전 선발등판이 확정적이다.

두 선수는 올해 세 번째 같은 날 등판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동반 승리투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류현진은 시즌 3승을 노리고 있다.

류현진은 올해 6경기에 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점 3.19로 에이스다운 성적을 올리고 있다.

7월 등판한 두 경기에서 난조를 보였지만, 8월 들어 2승 무패 평균자책점 1.23의 좋은 성적을 올렸다. 특유의 예리한 변화구와 제구력이 살아났다. 류현진은 8월 마지막 등판에서 3승에 도전한다. 호투 여부에 따라 2점대 평균자책점에 진입

할 수도 있다. 류현진과 상대하는 보스턴은 올해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메리칸리그 동부지구 최하위에 자리하고 있다.

김광현은 2연승에 도전한다. 김광현은 올해 마무리투수로 시즌을 시작했다. 그러나 팀의 선발 마운드 공백으로 인해 선발투수로 뛰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사카고 컵스전에서 3%이닝 3피안타 1실점 호투로 가능성을 보였던 김광현은 23일 신시내티 레즈전에서 6이닝 3피안타 무실점 역투로 메이저리그 데뷔 첫 승리를 일궈냈다.

김광현은 KBO리그에서 던질 때처럼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빅리그 타자들을 제압했다. 자신감을 얻은 김광현은 다시 한 번 검증에 나선다.

김광현은 올해 피츠버그전에 두 번째로 등판한다.

지난달 25일 피츠버그와의 경기에서 메이저리그 진출 후 첫 세이브를 올릴 당시 1이닝 2피안타 2실점(1자책점)으로 고전한 바 있다.

피츠버그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에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 육상스타 볼트, 코로나19 양성 판정

접촉자 조사 중

세계적인 남자 육상 스타 우사인 볼트(34·자메이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보도는 사실이었던다.

AP통신을 비롯한 외신들은 26일(한국시간) "자메이카 보건 당국이 볼트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뒤 이어 밀접 접촉자를 추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크리스토퍼 터프톤 보건부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볼트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사실을 이제 대중이 모두 안다. 볼트에게도 공식 통보가 이뤄졌다"고 확인했다.

앞서 자메이카 현지 라디오 방송은 "볼트가 며칠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고, 24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볼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방금 일어나서 내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글을 봤다. 증상은 없다. 자가격리 중이다"고 했다. 감염 여부를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볼트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건 지난 22일 자신의 34번째 생일 파티로 추정된다. 많은 사람이 모인 대규모 파티로 마스크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 우사인 볼트(3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격리 중이다(23일 현지시간) 밝혔다. (사진=우사인 볼트 트위터 캡처)

착용하지 않고, 즐기는 모습이 SNS를 통해 전파됐다.

잉글랜드 축구대표팀의 라힘 스텔링(맨체스터 시티)도 참석했다가 구설에 올랐지만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자메이카 경찰은 파티 참석자를 중심으로 추적하며 예외 없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볼트는 올림픽 금메달 8개, 세계선수권 대회 금메달 11개를 탄 세계적인 스포터이다. 100m(9초58), 200m(19초19), 400m(계주(36초84) 세계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 '2도움 맹활약' 전북 김진수, K리그1 17라운드 MVP

K리그2 MVP는 제주 '정우재'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 측면 수비수 김진수가 17라운드 최우수선수(MVP)로 선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김진수가 하나원큐 K리그1 2020 17라운드 MVP 뽑혔다"라고 26일 밝혔다.

김진수는 지난 23일 상주 상무와의 경기에서 팀의 두 골을 모두 어시스트하며 2-1 승리를 견인했다.

전반 2분에는 상대 페널티박스 측면 침투 후 날카로운 크로스로 신에 공격수 이성윤의 데뷔골이자 이날 선제골을 도왔고, 1-1 상황이던 후반 42분에는 정확한 크로스로 구스타보의 극적인 결승골을 만들었다.

김진수 활약에 전북은 상주를 꺾고 최근

5연승 신바람 행진을 달렸다.

최근 이적설에 휘말린 김진수는 이날 도움 2개로 최고의 활약을 펼치며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다. 김진수는 사우디아라비아 알 나스르로부터 거액의 이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K리그1 주간 베스트11에는 공격수에 주니오(울산), 구스타보(전북), 이정협(부산)이 올랐고 미드필드에는 나상호(성남), 송시우(인천), 박종우(부산), 이광혁(포항)이 뽑혔다.

수비수에는 김진수와 함께 오반석(인천), 강민수(부산)가 자리했다. 골키퍼는 최필수(부산)다.

K리그1 베스트팀은 전북이고, 베스트매치 역시 전북과 상주의 경기가 뽑혔다.

K리그2(2부) 16라운드 MVP에는 제주 유니타이트 정우재가 선정됐다.



정우재는 지난 2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안산 그리너스와 경기에서 1골 2도움으로 팀의 3-1 승리를 견인했다.

## "류현진, MLB 가상 올스타 후보" 美 CBS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가상 올스타 후보에 올랐다.

미국 'CBS스포츠'는 26일(한국시간) 2020시즌 내셔널리그, 아메리칸리그 올스타 후보를 선정했다.

올해 메이저리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7월 말에 개막했고, 팀당 60경기만 소화하는 미니 시

즌을 치르는데 합의했다. 시즌이 한달여 지난 시점에서 시즌 중반에 접어들었다.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올스타전은 취소됐지만, CBS스포츠는 가상 올스타를 선정했다.

류현진은 토론토의 올스타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에 선정된

류현진은 올스타전 선발 마운드에 오르는 영광을 안기도 했다.

류현진은 올해 6경기에 선발등판해 2승1패 평균자책점 3.19의 성적을 올렸다. 7월 두 경기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8월 들어 구위를 회복하면서 에이스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아메리칸리그에는 류현진과 함께 게릿 쿨(뉴욕 양키스), 잭 그레이키(휴스턴 애스트로스),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 등 쟁쟁한 투수들이 올스타 후보에 선정됐다.



## 함평학다리고 레슬링팀, KBS배 제패

금 2· 은 1· 동 4개 획득

레슬링 메카도시 함평에서 명가 재건을 위해 시동을 걸었다.

함평학다리고 레슬링팀은 25일 강원도 평창에서 끝난 양정모올림픽제패기념 제45회 KBS배 전국레슬링대회에 출전해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4개를 획득하는 기염을 토했다.

남고부 그레코로만형 60KG에 출전한 강경민(2년)은 결승에서 조현성(부산체고)을 9:1로 제압하고 금메달을, 그레코로만형 51KG 이건섭(3년)은 유준식(고척고)을 3:0으로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기엽(3년)은 그레코로만형 87KG

급에 결승에 출전해 윤동현(광주체고)에 패하며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그레코로만형 51KG 김홍영(2년), 그레코로만형 97KG 이승한(1년), 여고부 자유형 51KG급 최희진(2년), 자유형 59KG급 강경은(1년)은 동메달을 획득하며 학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힘을 모았다.

함평은 과거 84LA올림픽 금메달리스트故김원기, 88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영남, 92바르셀로나올림픽 은메달리스트 김중신을 배출한 레슬링 명가도시다.

또한 지난해 1월, 함평군청 레슬링팀이 재창단하면서 명가재건을 위한 굵은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

함평=김광춘 기자